

광주·전남 기아차 사랑 '눈에 띄네'

울 상반기 광주서 7323대 팔려 점유율 33.5% '특·광역시 1위'...전남, 제주 제외 전국 1위

울 상반기 기아차의 광주지역 점유율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기아차 점유율은 제주를 제외 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에 공장을 짓고 지역민을 채용해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한 몫을 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국산·수입차 신규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아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의 경우 울 상반기 광주에서 7323대가 팔려 33.5%의 점유율을 기록, 전국 평균 점유율(29.4%)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서울(25.8%), 부산(23.0%), 대구(19.8%), 인천(29.8%), 대전(28.6%), 울산(19.9%) 등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광주에서의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기간(31.8%)에 견줘 1.7%포인트 증가해 현대차 점유율 증가폭(0.4%포인트)을 웃돌았다.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로 바뀐 '올 뉴 K3'와 '더(THE) K9'를 출시하고 '쏘렌토', '스포티지', 'K5' 등은 상품성을 높인 모델로 내놓고 지역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여기에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완성차업체에 대한 신뢰도와 기업에 채용된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점도 점유율에 반영됐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같은 기간 한국지엠(2017년 상반기 6.5%→울 상반기 3.1%), 르노삼성(6.3%→4.3%)의 점유율은 크게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광주지역 현대차 점유율은 36.3%로 가장 높았지만 전국 평균(38.9%)에도 못 미쳤다.

전남도 비슷하다.

울 상반기 전남지역에서 팔린 신차 4만 3431대 중 기아차는 1만5358대로 점유율이 35.4%에 달했다. 렌터카 수요가 많은 제주도의 기아차 점유율(35.8%)을 제외 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이라는 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분석이다.

특히 기아차의 전남지역 점유율은 수입차 공세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34.0%)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울 상반기 전남지역에서 팔린 수입차는 3198대(점유율 7.4%)로 전년도 동기(2827대·6.8%)보다 0.6% 상승했다. 현대차는 전남지역 점유율이 41.0%(1만7816대)로 전년도 같은기간(40.1%·1만6769대)보다 0.9%포인트 오르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한편, 현대차의 경우 울 상반기 울산에서 판매된 신차 2만1700대 가운데 1만 3132대를 차지해 점유율이 6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가 많은 제주도에 서의 현대차 점유율이 절반을 육박하는 49.5%에 달했고 경북(43.8%)과 전남(41.0%) 등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수입차 점유율은 각각 15.9%, 7.4%였다.



기아차가 최근 출시한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더 K9'.

기업, 명품과 손 잡다

삼성전자-하만 카돈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 출시 기아차 '더 K9' 럭셔리 시계·조명...고품격 세단 강조

국내 기업들의 명품 플라보레이션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차별성을 갖춰 무한경쟁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하만 카돈 사운드바

삼성전자는 명품 오디오 브랜드인 하만 카돈과 협력해 만든 사운드바를 처음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플래그십 사운드바 'HW-N950'은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탑재해 네 개의 스피커만으로 일반 가정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최대 채널인 7.1.4 음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돌비 애트모스 기술은 마치 화면 속 현장에 있는 듯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최신 음향기술이다.

기아차는 지난 4월 플래그십(대표) 세단 '더 K9'을 출시하면서 명품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공을 들였다.

기아차는 K9에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인 '모리스 라크로와'의 아날로그 시계를 부착,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미

국의 색상 관련 권위 있는 기관인 '팬톤 색채 연구소'와 협업한 '엠비던드 라이트' 무드 조명을 실내 16곳에 설치, 럭셔리 세단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기아차는 또 지난 1월 미국 시장에 선보인 신형 K3(현지명 포르테)에 하만카돈사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외 LG전자도 지난 4월 열린 디자 인 전시회에서 60년 역사의 이탈리아 명품가구 브랜드 '나투찌(NATUZZI)'와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인 LG시그니처가 어울린 스마트홈을 꾸민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상반기 상장사 최고 보수

박신정 더블유게임즈 부사장 230억9천만원

울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은 박신정 더블유게임즈 부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가운데 박신정 부사장의 상반기 보수총액이 230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 부사장은 급여로 1억7500만원, 상여로 3억5000만원을 받은 데다, 지난 4월 자사주식 37만3347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으로 225억6000만원을 챙겼다.

더블유게임즈는 소셜카지노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업체로 미국 소셜카지노 업체 인수 효과와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주가가 크게 뛰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5위로 오너 출신으로는 가장 순위가 높았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20억8000만원)과 한진칼(16억3000만원), 한국공항(14억5000만원), 한진(6억7000만원) 등 4개 계열사에서 급여와 상여로만 약 58억3000만원을 받았다.

박성훈 전 카카오 최고전략책임자(CSO)가 6위로 스톡옵션을 받지 않은 전 문경영인으로는 상반기 보수가 가장 많았다. 그는 카카오M(32억원)과 카카오(25억4000만원)를 합쳐 모두 57억4000만원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레제니콘(왼쪽 네번째부터) 연해주 도로교통국장, 에어필립 영업석회장, 샤크로바 올가 국제협력국장, 세스타코브 콘스탄틴 관광국장, 등록청장 등이 에어필립 무안-블라디보스톡 취항 관련 협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어필립 제공>

에어필립, 첫 국제선 무안~블라디보스톡 추진

내달까지 2·3호기 도입

호남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인 에어필립(대표이사 회장 엄일석)이 2·3호기 도입과 함께 블라디보스톡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필립은 다음 달까지 2·3호기를 도입하고 첫 국제선으로 무안-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유력한 후보지로 구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에어필립 엄일석 회장과 임직원은 지난 5-8일까지 블라디보스톡 현지를 답사하고 연해주정부에서 공식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레제니콘(Mr. Vladimir Reshetnikov) 연해주 도로교통

국장, 샤크로바 올가(Ms. Shakrova Olga) 국제협력국장, 세스타코브 콘스탄틴(Mr. Shestakov Konstantin) 관광국장, 예브게니 A 루세스키(Mr. Evgeny A. Rusevskiy) 등록청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블라디보스톡 지역 6개의 신문에서 에어필립의 기사를 내보내는 등, 에어필립의 블라디보스톡 취항에 대해 지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엄일석 회장은 "에어필립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항공사로 광주 및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하고, 2·3호기가 도입되는 대로 국제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고, 블라디보스톡을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이 차후 한국관광객들의 새로운 신규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에 세스타코브 콘스탄틴(Mr. Shestakov Konstantin) 연해주 관광청장은 "연해주 주정부가 연해주와 대한민국 간의 새로운 노선 취항에 적극 찬성하며, 에어필립의 국제선 노선 취항 및 필립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기타 연관 사업에 충분한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양쪽 관광흐름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연해주 간의 관광객 수는 2017년 대비 2018년 상반기 100%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2분기 127억 적자

금호타이어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127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분기부터 6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올해 2분기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6%, 전 분기보다 25.7% 각각 감소했다.

2분기 매출액은 6647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 줄었다. 중국 더블스타로 매

각된 뒤에도 불안정성이 남아 글로벌 신차용 타이어(OE) 판매가 부진했고, 원화 강세 영향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2분기 국내와 북미 시장은 수요 감소와 시장 경쟁 심화로 교체용 타이어(RE) 판매가 위축됐다.

중국 시장은 주요 완성차업체의 공급물량 확대로 OE 판매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 짚이야?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욕구형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